산업용 섬유 육성자금 “낭비 의혹”

산자부, 2001-09년 1000억원대 투입예정 … 성과 달성은 미지수

산업용 섬유 생산기반 구축을 명분으로 한 산업자원부의 지원정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 세금을 낭비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.

정부는 공급과잉인 의류 중심의 섬유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, 아시아권 산업용 섬유 핵심 생산기지로 발전해 중국 등 후발국과의 차별화를 통해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무차별적인 산업용 섬유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

정부는 2001년 9월 부품·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용 섬유 생산기업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2001-03년 PVA (Polyvinyl Alcohol) 섬유 개발 등 6개 과제에 105억4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.

PTFE Membrane 복합섬유 Filter(크린에어테크롤로지), 초임계 유체 섬유가공소재(그린텍21), Cellulose계 재생섬유가공소재(SK케미칼), 고강도 PVA섬유소재(효성), 극선명초미세 DTF날염시스템(알티즌), 매연 및 VOC 동시처리용 섬유소재(H&CN) 개발도 지원한다.

2001년 11월에는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으로 나노섬유 개발을 지원키로 확정했는데, 2000-09년 9년간 정부 252억원, 민간 149억원 등 401억원을 투입해 Electro Spinning 등에 의한 PVDA, PGA, PAN 섬유의 Nano 섬유화, Geolite 등 무기 이방성 Nano 단섬유 제조 및 응용제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.

2001년 12월에는 산업용 섬유제품의 일류화 전략을 수립하고 2001년 6-12월 5000만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지원해 국내외 일류 산업용 섬유제품 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을 의뢰했다.

핵심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Infra 구축도 추진하는데, 2001년 11월 산업용 섬유 전문연구기반 구축사업 협약을 확정했다. 2001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5년간 정부 90억원, 민간 75억원 등 165억원을 투입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(원장 주덕영) 주관 아래 Pilot Plant 구축,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, 핵심기술 확보 등 산업용 복합섬유 연구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.

생산제품의 신뢰성 평가기반도 확보하기 위해 2001년 5월 섬유소재 신뢰성평가기반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00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4년간 정부 136억원, 민간 59억원 등 195억원을 투입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한국원사시험연구원, 한국의류시험연구원, 한국섬유기술연구소 주관 아래 필터백미디어, 건축용 및 토목용 섬유소재 등 42개 품목의 신뢰성 평가 및 인증 실시를 평가할 예정이다.

세계 시장규모 비교 (단위: 억달러)

구 분	1997	2000	2003	2008
· Tech-섬유*	**1,661**	**1,965**	**2,407**	**3,537**
· 섬유산업	3,901	4,593	5,196	6,383
· 정보통신산업	7,070	9,210	12,340	21,320
· 반도체산업	1,470	1,480	2,125	3,701
· 생물산업	313	540	740	1,250

*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정 자료) UN 통계

그러나 정부의 산업용 섬유 육성정책이 본래의 취지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. 급작스런 정책 수립에 관련기업들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.

한편, 산업용 섬유는 소비비중이 미국, 일본, 유럽 등에서 70%대에 이르는 반면, 한국은 20%대에 불과한 실정이다. 산업용 섬유는 모든 산업분야의 기초소재로 건축/토목, 정보통신, 반도체, 자동차/항공우주, 의학 등 모든 산업분야의 핵심소재로 사용돼 타 산업의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05/21>